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

기도서 379 번(A해)

제1독서: II 열왕 4, 8-11 14-16a

제2독서: 로마 6, 3-4. 8-11

복음: 마태 10, 37-42

순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0041 · 0042 · 0043

□칼론



하느님의 꿈

조 정 오 신부

꿈년의 반을 보내고 나머지 반년의 첫 날입니다. 우리는 년초에 무언가 하나씩 이것만은 이루어 보겠다고, 고귀하고 이상적인 계획들을 세웠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반년을 넘긴 오늘 그 계획은 얼마나 실현이 되었는지 한번 뒤돌아 보며 오늘 복음을 상기합시다.

하느님께서도 꿈꾸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며 생활하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신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과 일치 속에 모든 이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복음 중에 당신 나라 건설의 비결을 잠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태아가 엄마로부터 태출을 통해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도 참된 생명의 음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느님의 나라는 삼위일체의 사랑 속에 모든이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일치를 추구하고, 죄는 분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되는 극치의 방법은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랑의 논리를 통해서 당신과 우리를, 또 우리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죄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을 잃은 죽은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나의 이웃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 하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우리의 이웃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동력이요, 내 몸의 한 부분, 아니 또한 내 몸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일치해야 할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포섭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이웃과 한 몸이 된다는 엄청난 기적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또한 내 몸인 이웃과 일치하기 위한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계획임을 잊지 말고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랑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라디오 베리파스)



도덕성 문제

정치의 도덕성이 새삼 논의 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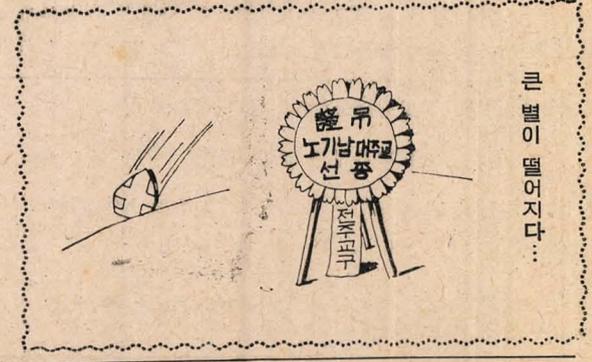
여당의 새로운 대표는 그의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에 대해서 “무정할만큼 높은 도덕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왜 국민들은 그렇게 높은 도덕성을 여당에게 요구하는가? 그것은 도덕성의 결여가 주는 유형무형의 엄청난 피해에 대한 간접적 고발이요,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민들의 앞에 나선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부응하지 못할 때 느끼는 배신감을 동반하는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도덕성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학교를 팔았다는 이야기, 외화를 빼돌린 교역자의 추태, 정치인의 비리..., 이 루 다 해아릴 수가 없다. 그들이 기세 좋게, 그럴 듯하게 말하던 봉사는 결국 봉사(장님)들 앞에서 벌인 봉사웃에 불과했다. 어떻게 교육사업이 돈을 버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장성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산이 수십억을 헤아린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들은 대개가 정화사업의 주역이 되고, 결국은 끼리끼리 짜고 눈감아 주며 벌인 봉사웃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도덕성에 예외가 되어야 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해서도 안되고, 법을 내세워 부당하게 재물을 모아도 안된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방죽을 흐리게 하는 데, 커다란 가물치가 요동을 치면 그 방죽에서 살아 남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결국은 가물치를 잡아내는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에게 던지는 한마디 말에도 도덕성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순정이 산책



아내의 십자가

손 용 철(안드레아)

“드높은 하늘에 커다란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고, 세상은 온통 아름다움으로 가득차 있었어요” 어둠과 함께 시작된 밤이 깊어 갈수록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깊숙히 빨려 들어가는 아내는 새벽이 되자 비통한 표정으로 자신의 최후를 암새워 지켜보던 우리에게 벅찬 기쁨을 안겨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담당의사로부터 절망선언을 받았던 그날 밤, 꺼져가는 한 생명을 지켜보는 내 눈에는 결혼 일 년 동안에 걸어난 아내의 발자취가 뚜렷이 나타나 보였다. 결혼하기 일 년 전, 철저하게 미신을 지키는 가정에서 홀로 영세를 한 아내, 오직 하나 소중한 그 믿음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 고저 비신자들의 부귀와 관록을 앞세운 청혼을 모두 거절하고, 가난 속에 묻혀 사는 나와 결혼을 한 아내였다. 어려운 생활 때문에 생계를 위하여 전주 양계장에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함께 고달픈 일을 해야만 했고, 불행히도 내가 다리를 다치자 임신의 무거운 몸으로 남편의 몫까지 해 내야만 했던 아내, 또다시 역경이 겹쳐 임신 산골의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밭 잡는 일을 하다가 며칠 동안 심한 몸살을 앓고 무척이나 쇠약해졌던 아내였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만 더욱 굳세고 뜨거운 믿음의 생활을 갈망했던 아내, 산 전에 얻은 감기가 산 후에 갑자기 폐염으로 돌아 예수병원에게까지 오게 된 아내였다. 중환자실의 특실이 모자라 응급실에서 나흘 동안이나 머무르다가 죽음에서 벗어나 그곳으로 옮겨진 아내는 날마다 하느님의 크신 은혜와 성모님의 돌보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순교 성조 손 선지의 전구와 의로친의 수고와 이웃들의 도움에 감사하면서 함께 성가를 부르며 성서를 봉독 하였다.

아내를 위한 생미사가 전동성당에서 봉헌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던 아내는 갑자기 소리치듯 말했다.

“저기를 보아요. 저 하늘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성모님이 내려다 보시네요. 아... 중환대가 하늘에서 땅 위까지 내려왔어요” 이어서 아내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직하게 노래를 불렀다. ‘라라라라...르르르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참 동안 계속되는 그 노래는 무척이나 신비로웠고 아내의 얼굴에는 평온의 빛이 넘치고 있었다.

아내의 전강은 날이 갈수록 서서히 나아져갔다. 그러나 하느님의 깊은 뜻을 뒤라서 알 수 있으리요? 입원한 지 두 주일 만에 아내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스물 일곱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 안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시신을 입관하려 할 때 아내의 얼굴은 무척이

□ 전주교구 교리교사 하기수련회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합회에서는 하기 주일학교 특별 교리에 대비한 교리교사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일 시 : 7월 14일(토)~17일(화) 3박4일

장 소 : 완주군 신촌 야영장

참가비 : 도시-1만원, 그의-9천원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세면도구, 소창집, 쌀 3되 (1인당)

접 수 : 7월 1일까지 교육국에

집 결 : 14일 오후 2시 30분까지, 가톨릭 센터

□ 특별 피정에 초대합니다

푸른군대 한국본부에서 주최하는 특별피정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7월 5일 오전 10시~오후 5시(파견미사)

장 소 : 노송동 성당(전화 6-0969)

대 상 : 레지오 단원, 푸른군대 회원, 일반 신자

준비물 : 피정에 필요한 것, 미사준비(현금 없음), 회비-1천원, 도시락 지참

강 사 : 하 안포니오 신부(푸른군대 지도신부)

유 재호 회장(푸른군대 청구교구 지부장)

후 원 : 레지오 마리에 한국 세나투스

□ 설악본당 미사시간 안내

하절기 관광철을 맞이하여 설악의 명소나 바다를 찾는 분들을 위하여 설악본당 미사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 토요일 오전 4시(어린이), 오후 8시

주일 오전 6시

오전 9시(불치공소-해변공소)

오전 10시 반

오후 8시(도문공소-본당에서 가까움)

평일 : 월·수-오전 6시 30분

화·목·금-오후 8시

숙박이나 관광안내 : 신자분들인 경우 필요하다면 본당에서 최대한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설악본당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천주교회

(전화 7-7625) 주임신부 하 화석

나 곱고 아름다웠으며 입가에는 밝은 미소를 띄우고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목주를 손에 쥔 그 모습은 마치 성모님의 자태와도 같아 보였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가 감탄하며 “죽은 얼굴이 저토록 아름다울 수가...!” 하고 말끝을 잊지 못했다.

역경과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아내의 무덤 앞에 십자가를 세우면서 나는 아내의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빌고 또 빌었다.

(김제천주교회)

☆ 금성 “팩토링금융”을 이용하세요☆

각종 전자제품 일괄 구비

서울 신한은행 앞 전화 ⑧ 8661 ③ 9963

대표 김 석 환(마테오)



금성이리 판매 센터

젊음의 패션 스포츠화!

무지개 신발

스포츠웨어, 가방, 테니스용품과 양말도 판매



워크엔드와 슬레지저

이△이△△포츠

구,역전오거리 4-3824 전야가다(정숙)

희 소 식

독사뱀 물린 사람 전문 치료 5대째

단시간 치료 완치할

연락처 : 전주시 전미동

1가 전당리 시내버스종점

☎ 5-3544

송 준 의(발라바)

(경)

지정환·배영근 신부님 은경축

(축)

모시는 말씀



지정환 신부님

우리의 영원한 사제이며 벗이신 지정환(더더에) 신부님과 배영근(요셉) 신부님께서 사제의 길을 걸으신지 25주년이 되는 은경축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가난한 우리의 생활을 돌보아주신 양위 신부님을 위해 부디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 1984. 7. 5. (목)

미사 11:00
축하식 12:00
축하연 12:30



배영근 신부님

곳: 중앙성당

은경축 준비위원회 위원장
평협회장 김인협(스테파노)

(성당에 차량 출입, 주차 할 수 없음-시청 부근은 텀)

□ 지정환 신부님 약력

- 1958. 4 사제 서품
- 1959. 7 런던대학 수료
- 1960. 3 전동 보좌
- 1961. 1 입실주임 겸임
- 1961. 7 부안 주임신부
- 1964. 6 입실 주임신부
- 1969. 12 농촌사목 지도신부
- 1973. 8 입실 주임신부
- 1973. 11 농촌 사목
- 1981. 1 본국 S. A. M 본부
- 1983. 10 귀국, 교구청 대기
- 1984. 2 장애자 지도신부

□ 배영근 신부님 약력

- 1959. 6 사제 서품
- 1960. 6 런던대학 수료
- 1961. 3 주교 비서
- 1961. 7 전동 보좌
- 1962. 12 교창 주임신부
- 1970. 5 본국 휴양
- 1972. 1 교구청 비서

□ 교구 평협 임원 개편



(김인협 평협회장)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는 6월 17일 [임시총회를 갖고 임원 개편을 하였다.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김인협(스테파노) 중앙 사도회장
- 부회장 김성원(요사팻) 복자 사도회장
- “ 채수현(시몬) 꼬미씨움 단장
- 감 사 김낙균(요셉) 서학동 사도회장
- “ 양규철(플레멘스) 중중 후원회 회장

- 상임위원 한상갑(바오로) 동산 사도회장 · 손병신(아우구스띠노) 창인동 사도회장
- “ 전현배(다두) 월명동 사도회장 · 김치덕(바오로) 김제 사도회장
- “ 진인호(스테파노) 입실 사도회장
- 사무국장 이주철(야고버) 교구청 교육국
- 사무국 차장 전자석(빈첸시오) 교구청 사목국
- “ 한재호(베다) 교구청 관리국

요심이(569) 김병오

민정당 대표자가
-180억 축재했다고...
-투서자는 연형
도사중...

당사자는 부인이
재산을 증식했다고
해명...

여보! 당신
이리 줘와요!

어떤 사람의 부인은
180억씩이나 재산을
모으는데 당신은 뭐야?!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스텔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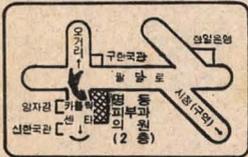
건강을 드려요

전주 중앙시장 입구
시민약국
☎ 4 0009 · 3 3338
김마벨로
정엘리사벳



쑤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비뇨기과, 병리검사



원장 전문의 최창기(투까)

부설: 임상병리 검사실

임상병리사 임용자

☎ 3 1719, 4 0616 (원장실)
(구역전오거리, 팔달로동면 2층)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3 3668
자택 3 8120

대중음식점·연희서관비
대형에어큰가동

대건회관

전북은행 본점 후문앞
(구, 미가도)
☎ 6-7566
김한영(안토니오)
하정희(엘리사벳)



1. 어린이양의 모후 뿌리아 회의: 1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회의실, 대상-각Pr, 간부
2. 대학생 연합회 성지 도보순례: 2일~5일(전주→여산→천호→퇴재→전주), 대상-모든 대학생
3.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일 오후 8시, 장소-가톨릭 센터
4. 공소회집 연수회: 5일~8일,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해당 공소회장님(공문 참조)
5. 쉐타 4기 예비자반 염세식: 7일 오후 7시30분, 장소-쉐타 강당
6. 제5지구 사제 회합: 2일 오전 11시, 장소-순창성당

☐ 전화번호 변경: 이리 성모의원 ③ 0714 ④ 0715, 수녀원 ② 3783

☐ 축! 영명: 성 토마 사도(3일)-서 용복·김 정원·이 재후·이 종원 신부님
성 김 대건 안드레아 신부(5일)-김 진소 신부님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①

(중앙)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협
전화 ⑥1711~3

1. 사도회: 금일 공식미사 후
2. 범지방문: 3일(화)
3. 성심부녀회: 금요일 어머니미사 후
4. 돼지저금통: 알차게 살펴봅시다(벌떡 현금)
5. 벽돌 불현: 22,505장 불현
- ☐ 지난주 봉헌금: 1,016,880원 교무금: 1,122,800원
특별 감사헌금: 박안드레아-50,00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 용 태
보좌 신부 이 성 우
사도 회장 이 홍 재
신부 ⑥0969
수·사 ⑦032

1. 신축기금 신입합시다: 윤갑동·안복래·유혜근-각 50만원, 김정희·최운진·유혜란-각 40만원, 최영숙·한기성·최형·송명준·이종관·박순중·김진섭·박영남·최성전·양상규·진명남·최마리아·김종현-각 30만원, 소계-660만원, 누계-64,070,000원
2. 대의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공소회장님·사도회 임원 꼭 참석하세요
3. 사제양성 후원기금: 예산액-2,144,000원, 모금액-1,255,077원(58,53%), 부족액-888,923원
(특별헌금 해주세요)
4. 분당 울뜨레아: 오늘 저녁 8시
푸르실리스마을의 빠질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헌판식에 수고해주신 분들과 본당차 카바 제작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분당 청년회 모임: 오늘 저녁 7시, 빠질없이 참석
7. 푸른군대 피정: 5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참가대상-레지오단원·푸른군대 회원·일반신자
준비물-미사도구·도시락, 회비-1천원
- ☐ 지난주 봉헌금: 177,885원, 아파트: 366,040원
교무금: 454,300원, 아파트: 177,0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 롱 희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도 회장 양 상 열
신부(3)2182 수임 신부 김 롱 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오늘의 모임: 요세회, 중·고학생 총회(9시 미사후)
2. 까리따스 자모회 월례회: 3일 오후 2시
3. 성심부녀회 월례회: 4일 오전 10시
4. 사도회 상임위원회: 7일 오후 3시
5. 금주 분당청소: 중·고학생회 7일 오후 3시
6. 다음주 모임 예고: L.M뿌리아(2시),
구역장·반회장 모임(4시)
7. 공소미사 안내: 1. 3주일-전당리, 2. 4주일-미산리
토요특전미사: 2·4째 토요일-전당리, 1·3째 토요일-미산리
- ☐ 지난주 봉헌금: 507,865원 교무금: 529,000원

(복자)

주임 신부 권 영 균
보좌 신부 김 성 원
사제관 75-0592 수임 신부 권 영 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첫철례⑥: 7일 저녁 8시
2. 성우회: 다음주일(야외행사) 공식미사 후 출발
장소-신리 쌍다리
3. 부녀회 월례회: 4일 어머니미사 후
4. 애령회: 2일 오전 10시, 임원들 꼭 참석 바람
5. 어머니 섬가대: 단장-최정순, 부단장-김순정, 총무-안정해, 섬가연습-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6. 첫영세체 교리: 1일~22일까지 매일 오후 5시~6시
(지도-이수녀님), 1일 3시 어린이미사에 자모님과 같이 나오세요

(서학동)

주임 신부 김 동 준
보좌 신부 김 낙 군
신부 ⑥8307번 수녀 ②276번

7. 설당에 선봉기 기증: 안정해-1대, 박홍기-1대, 익명-1대 감사합니다, 협조 바랍니다
8. 3일 성 토마 사도축일: 5일-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대축일
9. 1일 오늘은 교황주일 특별헌금 있음
10. 금주청소: 월-사도의 모후, 토-자비의 모후
11.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강기연 ②정운주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건 ②정동민
- ☐ 지난주 봉헌금: 120,810원 교무금: 528,540원

(순정이)

주임 신부 김 종 길
보좌 신부 김 수 갑
신부 ⑥7366 수·유 ⑨9567

1. 모임: 사도회 월례회-4일 저녁미사 후, 자모회-3일 오전 10시30분, 뿌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 반장님 월례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10일 저녁미사 후
2. 첫영세체 교리: 이번주까지 신청바랍니다
3. 사제양성 후원: 임금자·전태문·박봉희-각 1구좌
현재 78구좌 이제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김배근 ②한상철
- ☐ 지난주 봉헌금: 348,920원 교무금: 303,500원

(순정이)

주임 신부 김 종 길
보좌 신부 김 수 갑
전화 ⑥7366 수·유 ⑨9567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누갈다 부녀회: 11일 어머니미사 후
※ 미사시간에 늦지 맙시다
3. 봉성체: 4일 오전 11시 신청 바람
4.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정주복·허옥순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이귀례·유희자
- ☐ 지난주 봉헌금: 227,430원 교무금: 427,650원

(전동)

주임 신부 김 롱 희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도 회장 양 상 열
전화 사무 ③3222 수녀 ⑧3347

- ※ 축! 영명: 정양현(베드로) 신부님
축하식-오늘 공식미사 후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3. 자모회·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가정회: 7월 1일 12시
 5. 성마리아 뿌리아: 다음주 오후 2시
 6. 성모상 앞 인도브로로 단장: 자모회에 감사
 7. 다음주 전례담당
이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원 ②최정석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이영태 ②김홍기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 지난주 봉헌금: 830,110원 교무금: 380,000원

(호자동)

주임 신부 박 중 신
보좌 신부 이 교 성
신부 75-3841 수녀 2-4804 사무 2-0915

1. 사목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주제발표-선교부장
2. 사목방문: 4일 오전-1주공1단지
3. 성서강좌(수·토): 출애굽기 20~28장
4. 단체 회합안내: 클라라회-둘째주 공식미사 후
성모회-셋째주 공식미사 후
자모회-넷째주 공식미사 후
5. 성모기사회: 7일 오후 2시
6. 뿌리아: 오늘 오후 2시30분
7. 감사: 사제관 선봉기-익명
- ☐ 지난주 봉헌금: 334,095원 교무금: 578,500원